

故 이홍지 회장의 발자취



▲ 故 이홍지 회장

지난 2월 22일 작고하신 故 이홍지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1998년 12월에 부임하면서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협회 발전을 이룩하였다.

발전하는 모습의 발자취를 회고해보면 1999년 한국기계연구원과 기술협력 협약을 시작으로 (주)BSI 인증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였다. 이는 2000년 LG전자(주) 중국현지법인 위험 색출훈련을 계기로 동북아시아를 대비한 업무협력체제의 물꼬를 틔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해외로 돌려, 2002년에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안전과학연구중심과의 기술협약 등 4개 기관과 추

진하였고, 인도의 NSC, 베트남 노동보호원, 미국의 DuPont사, 국제 ILO 등과의 관계로 넓혀 나갔다.

이는 국내 기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한 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동남아 지역에 많이 갖게 하였다.

협회 이미지 제고부분에서도 뚜렷한 활동을 하였는데, 1999년 3월에 본지인 “월간 안전기술”을 창간함으로써 국내 안전기술지로는 최고의 월간지로 자리 잡게 한 것을 비롯해, 홈페이지 개설과, 지구와 웃는 안전인을 상징한 심볼마크의 변화로 그동안의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본사를 부천에서 서울로 확대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지회, 서울지회, 성남지회, 경



▲ 서울지회 이전 기념 현관식에 참가



▲ 제 2회 안전그림 공모전

기북부지회, 충남북부지회, 경기남부지회 등 자체 건물을 마련하는 등 사무 환경 개선에도 온 힘을 쏟았다.

이는 사업 확대로 나타나면서 경기남부지회를 새롭게 설립하고, 서울동부출장소, 통영출장소, 김해출장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항상 안전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故 이홍지 회장은 사업 이외에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활동도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2003년부터 시행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그림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난 2006에는 “KISA 산업안전수기 공모전”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혼열의 힘을 쏟았다.

특히, 2001년에 발표한 KISA 안전보건표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보건표지의 틀을 넘어 다양한 기계기구 및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에 보급하였고, 무재해운동 활성화를 위해 무재해달성탑과 달성기를 사업장에 수여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점차 자리잡고 있는 협회는 2000년 재난·재해예방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안전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던 故 이홍지 회장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병석에서 업무를 볼 만큼 안전에 대한 열정은 지금 우리 안전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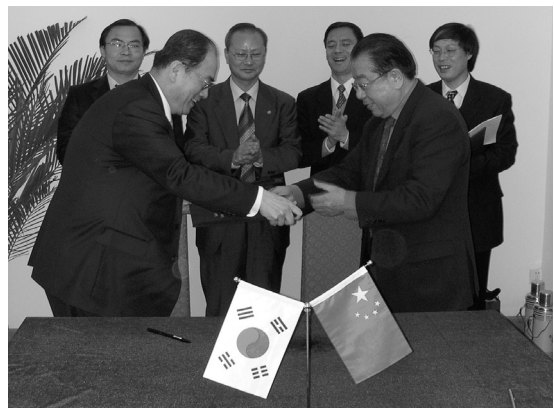
안전의 큰 별을 보내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쌓아온 안전탑을 우리 안전인들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故 이홍지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편집자 주〉



▲ 베트남 동나이성 TV 인터뷰



▲ 중국 직업안전보건협회(COSHA)와 안전 업무 협약